

9月

日 月 火 水 木 金 土

3 4 5 6 7

8 10 11 12 13

①

15:00

②

17:00

③

19:00

SAPY
Gray Room



예약제 정시 입장
Timed Entry by
Reservation

일몰과 일출 사이의 검은 시간 사이로 섯노란 통로가 고여있다. 좁은 파장의 황색 빛만을 발광하는 저압 나트륨램프the low pressure sodium lamp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단색monochrome의 풍경은 가위눌림 속 생생했던 마주침을 마치 없었던 세계처럼 접어 닫는다. 전시에 초대된 모든 존재는 서서히 색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선명해지며—잠기고soaked, 들리고lifted, 들뜨기peeled 시작한다.

이제 죽은 자와 산 자가 하나의 탕에 들어간다. 훼손되어 너덜거리는 모든 살과 뼈는 통통 불어 스스로 벗겨지기 시작한다. 그 많은 이들이 때를 밀었는데도, 떨어지는 풍경은 깊은 산 속의 웅달샘처럼 검고, 밝고, 맑다.

“모르는 / 이름들이 / 실뱀처럼 내 귓속으로 흘러드는데, 밤비 / 내리는데, 비 맞는 / 귀신버들 / 잎잎이 살을 떠는
가지에 앉아, 너는 / 내게 자꾸 돌맹이를 / 먹이는데, 살도 / 뼈도 없는 / 나에게”
—김언희, 「귀류鬼柳」

축제는 ... 훼손하는 것이다.
축제는 ... 시달리는 것이다.
축제는 ... 매달리는 것이다.
축제는 ... 접속되는 것이다.
축제는 ... 기뻐하는 것이다.
축제는 ... 깨끗해지는 것이다.
축제는 ... 고마워지는 것이다.
축제는 ... 그리워지는 것이다.
축제는 ... 시간이 멈추는 것이다.
축제는 ... 시간이 흐르는 것이다.
축제는 ... 보이고 들리게 되는 것이다.
축제는 ...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다.
축제는 ... 아무런 소용도 없다.
축제는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화가였던 아빠의 급사 이후 정교한 색으로 겹겹이 채색되고 말려진 닥종이가 그리 많지도 적지도 않은 무더기로서 남았다. 내가 그것들을 오려서 그리는 것은 주로 사체들이다. 법의학 책에서 갖가지 사인으로 인해 끝장나있는 시체들이다. 페이지를 펼치면 그들은 앞다퉈 눈앞에서 죽어버린다. 페이지를 다시 열면 또 죽는다. 다시 열면 또, 또 죽는다. 그들은 냅다 선수를 쳐버리거나 그 안에서 함께 살게 한다. 그럴 때면 김언희 시집을 읽는 것만큼이나 웃기고 편안해진다. 오방색의 색면으로 젖고 말려진 닥종이는 또한 아름다워서, 가위질된 몸들은 선명한 오방색을 갖는다. 그들을 ‘축제’ 라고 부르고 친구들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불교의 천도의식 중 목욕의례인 ‘관욕灌浴’은 이 전시에 둘러 모이는 산 자와 죽은 자 모두를 향한 씻김으로서 집전된다. 의식에 가장 먼저 자리를 마련하는 손님이자 동행자들은 ‘축제’들이다. 그들은 더이상 몸을 받기 위해 가위질을 재촉하는 무연고의 영가들이 아니며, 때 묻은 시공간과 영혼이 깨끗해지도록 인도하는 안내자들에 가깝다. 세상 만물의 무름과 단단함과 날카로움은 부드러운 살과 뼈, 그리고 마음을 문드러뜨리고 벗겨 내는 갖가지 방법이 된다. 마치 고인들 아래 유령처럼 누워 바깥의 태양과 구름과 새들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저버린 모든 것들은 찬란하고 그리워진다.

‘축제’는 내게 죽음에 대해서, 사체에 대해서, 그리고 어린 시절에 대해 말하기 위해 무언가를 통제하는 것의 불가능성을 가르친다. 서로 눈이 마주칠 정도로 ‘축제’를 수없이 직면할 때, 그 마비된 시간 속에서는 역설적인 돌봄의 관계가 생겨난다. 이러한 기담奇談 혹은 기행紀行을 공공의 자리에서 모두에게 말할 수 있도록—‘축제’는 어떤 간섭이나 격려도 없이, 그저 바라본다.

차연서, 2024

살도 뼈도 없는 나에게

A bright yellow passage festers in the dark hours between sunset and sunrise. The low-pressure sodium lamp, emitting only a dusty yellow light of a certain wavelength, produces a monochrome scene that casts away my vivid encounters during sleep paralysis, as if the world of my nightmares never existed. All inside the exhibition space grows distinct outside the realm of color—becoming soaked, lifted, and peeled.

Now the dead and the living enter a single bath. Submerged in hot water, all the damaged flesh and bones begin to peel on their own. Despite the debris collected from numerous bodies, the scene remains black, bright, and clear, like spring pool deep inside a mountain.

“... names / I don’t know / Slither like snakes into my ears, the night / Rain falls, wetting /
The ghost willow / Perched on a branch with quivering leaves, you / Keep feeding me /
Stones, me of / Neither flesh / Nor bone”
—Kim Eon Hee, *The Ghost Willow*

The *Festival* entails ... defacing.
The *Festival* entails ... suffering.
The *Festival* entails ... clinging.
The *Festival* entails ... communing.
The *Festival* entails ... rejoicing.
The *Festival* entails ... becoming clean.
The *Festival* entails ... feeling gratitude.
The *Festival* entails ... longing.
The *Festival* entails ... time stopping.
The *Festival* entails ... time passing.
The *Festival* entails ... gaining sight and hearing
The *Festival* entails ... losing sight and hearing
The *Festival* entails ... being of no use.
The *Festival* entails ... choosing to do so nevertheless.

After the sudden death of my father, a painter, I was left with a pile of dak paper dyed in exquisite colors. From these papers I cut out mostly the silhouettes of corpses—bodies that met their end in various ways, as depicted in forensic books. When I open the pages, they die before my eyes. When I open the pages again, they die once more. Over and over again, they die. They dampen my death drive by either rushing to their end without me or inviting me to stay within the pages, which is as amusing and comforting as reading a poetry collection by Kim Eon Hee. The dak paper, beautifully soaked and dried in the five traditional colors of Obangsaek, gives the cut-out bodies their colors. I began to refer to them as my friends, as “the Festival.”

The Buddhist ritual of bathing, ‘Gwan-yok’ (灌浴), is performed to purify both the living and the dead who gather around this exhibition. The first guests and companions to be welcomed in this ritual are the Festival. They are no longer unclaimed spirits awaiting paper bodies; they serve as guides who lead the cleansing of time, space, and souls stained by the world. The frailty, hardness, and sharpness of all earthly things become various methods to soften and strip away the flesh, bone, and mind. We come to miss all that has been abandoned, as if lying like ghosts under a dolmen and gazing at the beauty of the sun, clouds, and birds.

The Festival teaches me the impossibility of control when it comes to death, corpses, and childhood. Facing the Festival and meeting their gazes, a paradoxical relationship of care emerges inside that paralyzed time. To these strange tales or travels to be shared publicly—the Festival simply observes without any interference or encouragement.

Cha Yeonsa, 2024

Feed me stones

차연서 개인전 《살도 뼈도 없는 나에게 Feed me stones》는 작가의 아버지이자 화가인 故 차동하의 작고 전 마지막 시리즈 〈축제 Festival〉(2006–2017)의 재료를 전시장에 불러옵니다. 단색으로 채색된 색면이 수직, 수평의 격자 구조 안에서 균형을 찾아 배치되는 〈축제 Festival〉(2006–2017)는, 딸인 차연서의 시선을 관통해 관객 앞에 재등장합니다. 2021년 아버지의 급사 후 그의 작업 재료의 무더기가 유품으로 남았고, 차연서는 그가 제작해 놓았던 채색된 닥종이를 하나씩 하나씩 소진하며 동명의 평면 연작 〈축제 Festival〉(2023–2024)을 이어갑니다.

〈축제 Festival〉(2023–2024)는 남겨진 닥종이를 가위로 갈라내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일종의 ‘종이 오리기(Paper Cut-out)’이자 ‘훼손하기’로 볼 수 있는 이 형식은 돌연사한 아버지에 대한 작가의 정서가 반영된 행위입니다. 작가는 이 같은 움직임을 통해 법의학 책에 실려 있는 죽은 몸을 가르고, 드로잉하며, 그것들과 관계 맺습니다. 이는 무언가를 베껴 쓰는 필사의 몸짓이기도 합니다. 법의학 책의 도판으로 등장하는 몸들은 무연고의 몸이자, 공익을 위해 도용되고 전시된 몸입니다. 작가는 아무도 경조 행사를 치러주지 않는 이 몸들과 하나의 지면을 밝기를 시도하며, 이들과 함께 영가들의 목욕재계를 이끄는 의식 ‘관욕 Baths’을 행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들을 위로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몸들로부터 무언가를 받는 사건의 현장을 만드는 일입니다.

본 개인전에서 회차마다 한 번씩 재생되는 사운드 작업은 남겨진 아버지의 정원에서 레코딩한 소리를 수집하고, 재구성한 것입니다. 개사된 관욕의 노랫말에는 정원을 둘러싸고 그곳에서 죽고 태어난 모든 비인간 존재들의 소리가 섞여 들어가 있습니다. 검은 산 아래 허물어진 연못, 녹음된 한밤중의 청개구리 소리, 새벽의 호반새 울음소리는 전시 공간에 만들어진 중간 세계로 관객을 초대합니다.

The solo exhibition of Yeonså Cha, titled “*Feed me stones*,” brings in materials from *Festival* (2006–2017), the final series created by her father, the late painter Cha Dong-ha. *Festival* (2016–2017), in which monochromatic color fields are arranged and find balance within a vertical and horizontal grid structure, is newly presented to the audience through the eyes of his daughter, Yeonså Cha. After her father's sudden death in 2021, Yeonså Cha continues the drawing series in her own *Festival* (2023–2024), cutting up his colorful dak papers one by one until they are all exhausted.

Festival (2023–2024) involves the artist cutting the dak papers with scissors, much like paper cut-outs. This technique, which can be seen as “defacing” her father's materials, reflects the artist's sentiments towards his sudden death. Through this process, the artist cuts, draws, and otherwise engages with corpses depicted in forensic books. This act resembles transcription, or taking dictation. The bodies, unclaimed by their families have been photographed and published in forensic books for the public good. The artist attempts to stand on the same page as these bodies, conducting a Buddhist bath ritual to purify their spirits. The intention is more to create a space where the audience receives something from these bodies rather than to unilaterally comfort them.

The sound work, played once per session, is a collection of reconstructed sounds recorded from her father's garden. The rewritten lyrics of “Baths,” adapted for the exhibition, incorporate the sounds of all non-human entities that have died and been born around the garden. The sounds of a collapsed pond at the base of a black mountain, tree frogs in the middle of the night, and the ruddy kingfisher at dawn invite the audience into an intermediate world created inside the exhibition space.

Papercut Collage (Color on Dak Paper; The late Cha Dongha)

1. 24 #9 목욕진언 *Mantra for Bathing*, 2024. 75 × 105 cm
2. 24 #10 화의재진언 *Mantra for Clothing*, 2024. 75 × 105 cm
3. 24 #4 소맷귀 *Cuffs*, 2024. 75 × 105 cm
4. 23 #4 개가 된 여자 *Dog*, 2023. 75 × 105 cm
5. 23 #6 젖은 목탄 *Charcoal*, 2023. 77 × 105 cm
6. 23 #5 붉은 저수지 *Reservoir*, 2023. 89 × 108 cm
7. 23 #3-1 세빗 딜도 *Dildo*, 2023. 77 × 57 cm
8. 23 #3-2 딱두꺼비 손목 *Toad*, 2023. 77 × 57 cm
9. 24 #7 약봉지 *Pills*, 2024. 77 × 63 cm
10. 23 #1 꽃다발을 든 아이 *Bouquet*, 2023. 108 × 89 cm
11. 23 #9 수문지기 *Watergate*, 2023. 77 × 63 cm
12. 24 #3 표모피 손톱 *Nails*, 2024. 75 × 105 cm
13. 24 #1 표모피 장갑 *Gloves*, 2024. 75 × 105 cm
14. 24 #2 표모피 양말 *Socks*, 2024. 89 × 108 cm
15. 24 #6 버들여신 *The angle Babylonica*, 2024. 75 × 105 cm
16. 24 #8 아이들과 어른들 ('없소') *Childs and Grown-ups* ('Without'), 2024. 75 × 105 cm
17. 23 #7 벌레들의 수계식 ('헐, 헐, 헐') *Precepts* ('heol, heol, heol'), 2023. 75 × 105 cm
18. 23 #8 엉덩이 커튼 *Curtain*, 2023. 88×106.5 cm
19. 23 #10 맨드라미 *Mandarava*, 2023. 89 × 108 cm

F 차동하, 소묘 90 #12, 1990. 닥종이에 먹, 132×165cm (‘홍수’)
Cha Dongha, *Drawing 90 #12*, 1990. Muk on Dak paper, 132×165cm (‘Flood’)

살도 뼈도 없는 나에게 *Feed me stones* 6
2024
종이에 브러쉬펜
Brush pen on paper

20. #1 서 있는 채로 *Standing*, 2024. 29.7 × 21 cm
21. #2 눈 감은 채로 *With the eyes closed*, 2024. 29.7 × 21 cm
22. #3 검어진 채로 *With the face darkened*, 2024. 29.7 × 21 cm
23. #4 올려다 보는 채로 *Looking up*, 2024. 29.7 × 21 cm
24. #5 똑바로 보는 채로 *Staring*, 2024. 29.7 × 21 cm
25. #6 윙크하는 채로 *Winking*, 2024. 29.7 × 21 cm
26. #7 등바닥이 따끔따끔한 *Itching*, 2024. 29.7 × 21 cm
27. #8 발바닥이 간질간질한 *Tickling*, 2024. 29.7 × 21 cm
28. #9 뒷모습 *Back*, 2024. 29.7 × 21 cm
29. #10 뒷모습 *Back*, 2024. 29.7 × 21 cm
30. #11 뒷모습 *Back*, 2024. 29.7 × 21 cm
31. #12 나무들 *Trees*, 2024. 29.7 × 21 cm
32. #13 염장이 *Yellow-time flies*, 2024. 29.7 × 21 cm

Light , sound, video, installation, time, and drawings (50 min)

35. 축제송祝祭頌 *Festival Song*, 2024. digital sound (Sound design; Lee Solyoub), 6 min

불교의례 개사·재구성: 차연서, 목소리: 동환스님, 울음소리: 청개구리와 호반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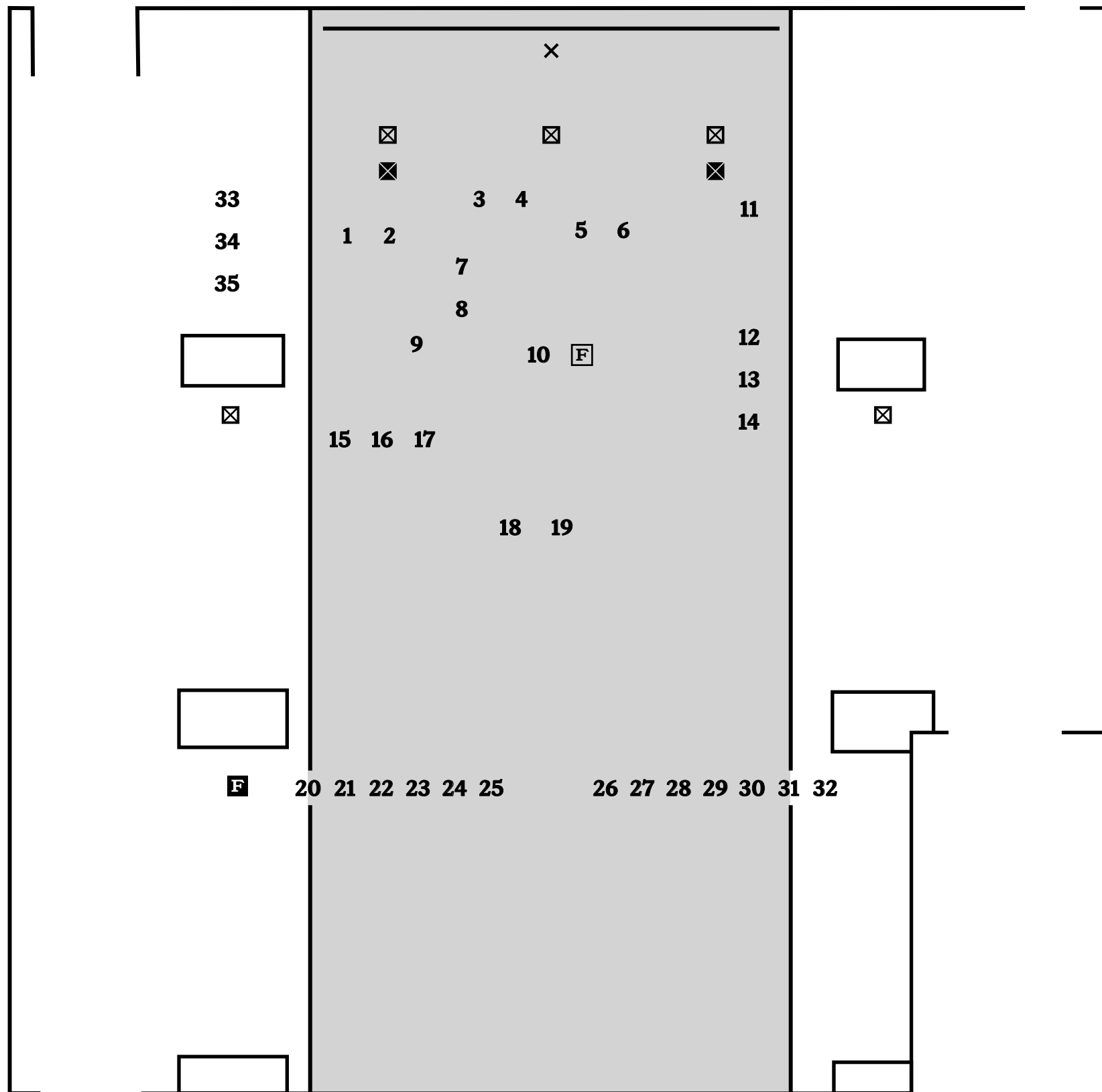
■ 사운드디자인·리믹스: 이솔엽, 필드레코딩 장소: 故 차동하의 작업실 정원, 2024. 6. 26.-6. 27., 2024. 7. 8.-7. 10.

× 비디오: 차연서, ☒ 조명·좌대·공간디자인: 김혜정

Adaptation · Reinterpretation of Buddhist Rituals by Cha Yeonsa, Chanting by Ven. Donghwan, Cried by the frogs(*H. japonica*) and birds(*H. coromanda*),

✘ **Sound Design · Remix by Lee Solyoub, Field recording place is the garden surrounding the late Cha Dongha's studio, June and July 2024**

✕ Video by Cha Yeonsa, ☒ Light·Stand·Space Design and Installation by Kim Hye Jeong



밤비
내리는데
머리카락 같은 비
휘날리는데, 휘감기는데
귀류, 귀류, 비 맞는 귀신버들
기름한 잎잎이, 기름한
눈을 뜨는데
물 위에다
빗방울은 자꾸
못 보던 입술들을 피워 내는데, 뜰채로
뜰 수도 없는 입술들을
피워 내는데, 모르는
이름들이
실뱀처럼 내 귓속으로 홀리드는데, 밤비
내리는데, 비 맞는
귀신버들
잎잎이 살을 떠는 가지에 앉아, 너는
내게 자꾸 돌멩이를
먹이는데, 살도
뼈도 없는
나에게

The night rain
Falls
Like hair, this rain
Blows and bends and
Wets the willow, willow, ghost willow
Elongated leaves open
Their elongated eyes, and
On water
Raindrops keep
Blooming new lips, blooming
Lips that can't be fetched
With a net, names
I don't know
Slither like snakes into my ears, the night
Rain falls, wetting
The ghost willow
Perched on a branch with quivering leaves, you
Keep feeding me
Stones, me of
Neither flesh
Nor bone

용설란 같은 것은 여기에 없소 깨어진 턱뼈 같은 것은 여기에 없소 설은 고양이 같은 것은 여기에 없소 요염한 거미 같은 것은 거미원숭이 같은 것은 여기에 없소 거꾸로 기어내려올 벽 같은 것은 여기에 없소 어머니 같은 것은 여기에 없소 사랑하는 어머니 썩은 배처럼 웃으시는 썩은 배 시커멓게 썩은 배 같은 것은 여기에 없소 걸쭉한 인공 폭포 같은 것은 여기에 없소 하느님 같은 것은 공중 변기 레버 같은 것은 여기에 없소 우산대에 꿰인 쥐 같은 것은 여기 없소 심야의 면도질 새파랗게 면도질한 햇바닥 같은 것은 여기에 없소 비명 같은 것은 바닥 같은 것은 유령 같은 것은 여기에 없소 생기기도 전에 죽은 아이 같은 것은 시 같은 것은 여기에 없소 파란 아이가 돌리는 파란 점시 같은 것은 여기에 없소 벌 떼처럼 죽음이 잉잉거리고 벌 떼처럼 죽음이 꼬이고 꼬이고 꼬이고 다만 살이 금이 되도록 익는 살구 계단 같은 것 계단 같은 것은 여기에 없소



I. 인예향욕(引詣香浴)

이 자리에 무거운 몸 들어 오신 모든 이여
요령 올리 맞이하니 목욕준비를 하소서

신묘장구대다라니(神妙章句大陀羅尼, *Nīlakaṇṭha Dhāraṇī*)

II. 가지조욕(加持澡浴)

따른 몸을 적시고자 굳은 몸을 펴주고자
푸른 몸을 덥히고자 붉은 몸을 식히고자
삼가 욕실 장엄하고 향기로운 탕 속에서
번뇌 없이 공 하여서 본래 마음 되찾으니
머리 감고 몸 담그고 버들가지 씹어내어
양치질에 입 행구고 손과 얼굴을 닦으소서

▶ 목욕계(沐浴偈)

이제부터 물에 들어가
모든 이가 목욕 하시니
몸과 마음 씻어 내고서
본 고향에 돌아가네

▶ 목욕진언(加持澡浴)

▶ 작양지진언(嚼楊枝眞言)

▶ 수구진언(漱口眞言)

▶ 세수면진언(洗手面眞言)

III. 가지화의(加持化衣)

여기 모인 모든 이가 목욕제계 마치었고
스스로의 불성으로 깨달은 옷 가지하니
한 벌의 옷이 수만 벌로 다함없이 늘어나고
각기 몸에 길지도 짧지도 좁지도 넓지도 얇으면서
여자옷 남자옷 나눠지 않고 불편함 없이 꼭 맞아서
그간 입은 어느 옷보다 해방하는 옷이 되소서

▶ 화의제진언(化衣財眞言)

변한 옷이 가득하니 없던 옷은 받으시고
헐은 옷은 갈아입고 온전하게 입으소서

▶ 수의진언(授衣眞言)

▶ 착의진언(着衣眞言)

▶ 정의진언(整衣眞言)

IV. 나무대성인로왕보살(南無大聖引路王菩薩)

나무~~ 대성~~ 인로~~~~~ 왕~~ 보살
나무~~ 대성~~ 인로~~~~~ 왕~~ 보살
나무~~ 대~~ 성~~~~~
이~~~~~이~~~~~이~~~~~
~~~~~ 이 인로 오오 ~~~~~~  
~~~~~ 왕 으아~~~~~  
~~~~~보오~~~~~사알 으아~~~~~

▶ 마무리 멜로디: 변안동요 깊은 산 속 웅달샘 (원곡: *Drunten im Unterland* by Friedrich Silcher)

관욕(灌浴, Gwanyok) Baths

우리말 작사 및 구성. 차연서, 실연/자문. 동환스님  
참고서적 「수륙무차평등재의촬요」(2022), 「불교상응의례집」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016), 「삼밀시식행법해설」(2011)

I. Guiding to prepare for a bath

All those who have journeyed here with heavy bodies  
Please prepare for your bath as we welcome you

Recitation of names and attributes of a  
bodhisattva acutely aware of the world

II. Guiding to have a bath

To moisten the dry body, to relax the stiffened body  
to warm the chilled body, to cool the reddened body  
the bath has been carefully prepared with fragrant water  
Strive without anguish and regain your purity of heart  
Wash your hair, soak your body, chew the willow branches  
rinse your mouth clean, and wipe your hands and face

▶ Singing in chorus for a bath

Now enter the water  
with all others bathing  
Cleanse your body and heart  
and return to your home

▶ Mantra for soaking the body

▶ Mantra for brushing the teeth

▶ Mantra for rinsing the mouth

▶ Mantra for washing the face and hands

III. Changing clothes

All those gathered here have concluded bathing  
and obtained clothing through enlightenment  
One pair of clothes will multiply to thousands  
neither too long nor short, neither too narrow nor wide,  
that fit perfectly and comfortably regardless of gender  
and liberate the wearer beyond imagination

▶ Mantra for making liberating clothes

Please accept your new clothes, as there are plenty  
Remove your old clothes and transform from head to toe

▶ Mantra for giving out new clothes

▶ Mantra for wearing new clothes

▶ Mantra for wearing new clothes properly

IV. Calling Bodhisattva who guide the path after death

▶ Closing melody from *Drunten im Unterland* by Friedrich Silcher

관욕(灌浴, Gwanyok) Baths

Lyrics by Cha Yeonsa, Performed and proofread by Ven. Donghwan.  
References: *Ritual Text for the Water and Land Ceremony* (2022),  
*Collection of Buddhist Rituals* (Jogye Order Educational Center, 2016),  
*Guide to Conducting Buddhist Ceremonies for the Dead* (2011)



아~~ 지심결청 지심결청 일희대중에 일~~ 심 봉~~ 청

가을바람 꽃바람에 선들선들 어서오소

꿈이어라 헛이어라 어이하어 속절없이[\*]

서쪽에서 불어오는 무연고의 몸들이여

살도 없고 뼈도 없는 황혼 속에 초대하네

책상에서 침대에서 욕조에서 가방에서

접힌 몸을 펼쳐주고 닫힌 몸을 열어주며

한 아이의 멈춘 시간 지켜 냈으니

이 얼마나 고맙고 그리운 일인가

검은 산에 물소리는 종소리로 들려오고

새벽 안개 불 켜진 집 풀벌레들 엮드리고

정갈하던 정원에는 소나무들 지켜 서고

허물어진 연못에는 연꽃들이 고개 들고

등불 위로 커다래진 그림자 되어

저문 하루의 마지막 길을 내려다 보네

나무 일심봉청 금일 영가 영가시여

황혼 속에 오색찬연한 관객들과 친구들이여

먼 길 어려운 마음 내어 여기까지 찾아 오셨나

이 시대에 예술로서 천도재를 봉행할 때

눈이 없고 귀가 없는 어린 개가 태어나서

코를 박고 땅을 핥고 바람 따라 길을 찾아

서늘하게 산책하고 집으로 돌아가듯이

가시는 길 안락하고 평안하게 나아가세요

축제송(祝祭頌) Festival Song

4.4조 작사. 차연서, 실연/자문. 동환스님

[\*] 동환스님, 이태원 참사 희생 영가를 위로하는 화청에서 인용

“가을바람 꽃바람에 선들선들 어서오소 / 꿈이어라

헛이어라 어이하어 속절없이 / 거리중에 누워있나 ...”

Oh, I beg of you, I beg of you with all my heart

Come, come, with the autumn winds, the flower winds

Come, come, what a dream, what a waste [\*]

Oh orphaned bodies blown over from the west

I invite you all into a twilight of neither flesh nor bone

What a blessing, what a gift it is

to open and free bodies folded

inside desks, beds, tubs, and bags

and look after your time cut short

Water trickles in the mountains like a distant bell

as bugs lie low outside a house veiled in morning fog

Pine trees guard the tended garden

as lotus flowers lift their heads from the forgotten pond

to loom large as shadows above lamps

and watch over the final road of the day

Oh spirit, spirit of the day, I beg of you with all my heart

Oh audience and friends shining in the twilight

Did you journey all the way here with heavy hearts

to perform a death ritual in this day and age through art

Like a young dog born without eyes nor ears<sup>15</sup>

that licks the ground and follows the wind

to find its way home with ease

please get home safely and move forth with peace

축제송(祝祭頌) Festival Song

Lyrics by Cha Yeonsa, Performed and proofread by Ven. Donghwan

[\*] Borrowed from a Buddhist song by Ven. Donghwan, written to console the victims of the 2023 Itaewon crowd crush—“Come, come, with the autumn winds, the flower winds, / What a dream, what a waste. / Why are you helplessly lying out on the street?”



황혼(黃昏)이 질 때면 At Dusk  
16

개같은

똥같은

갈보같은 구멍

천역에 찌들린 구멍, 피로로

씩어가는 구멍, 이미

끝장이 난 구멍

끝장이 난 다음에도 증얼거리는

크르륵거리는 구멍, 풍선껌을

씹는, 말랑말랑한 이빨로

내 머리를 씹는, 움쪽

움쪽 나뭇

삼키는

구멍

황혼이 질 때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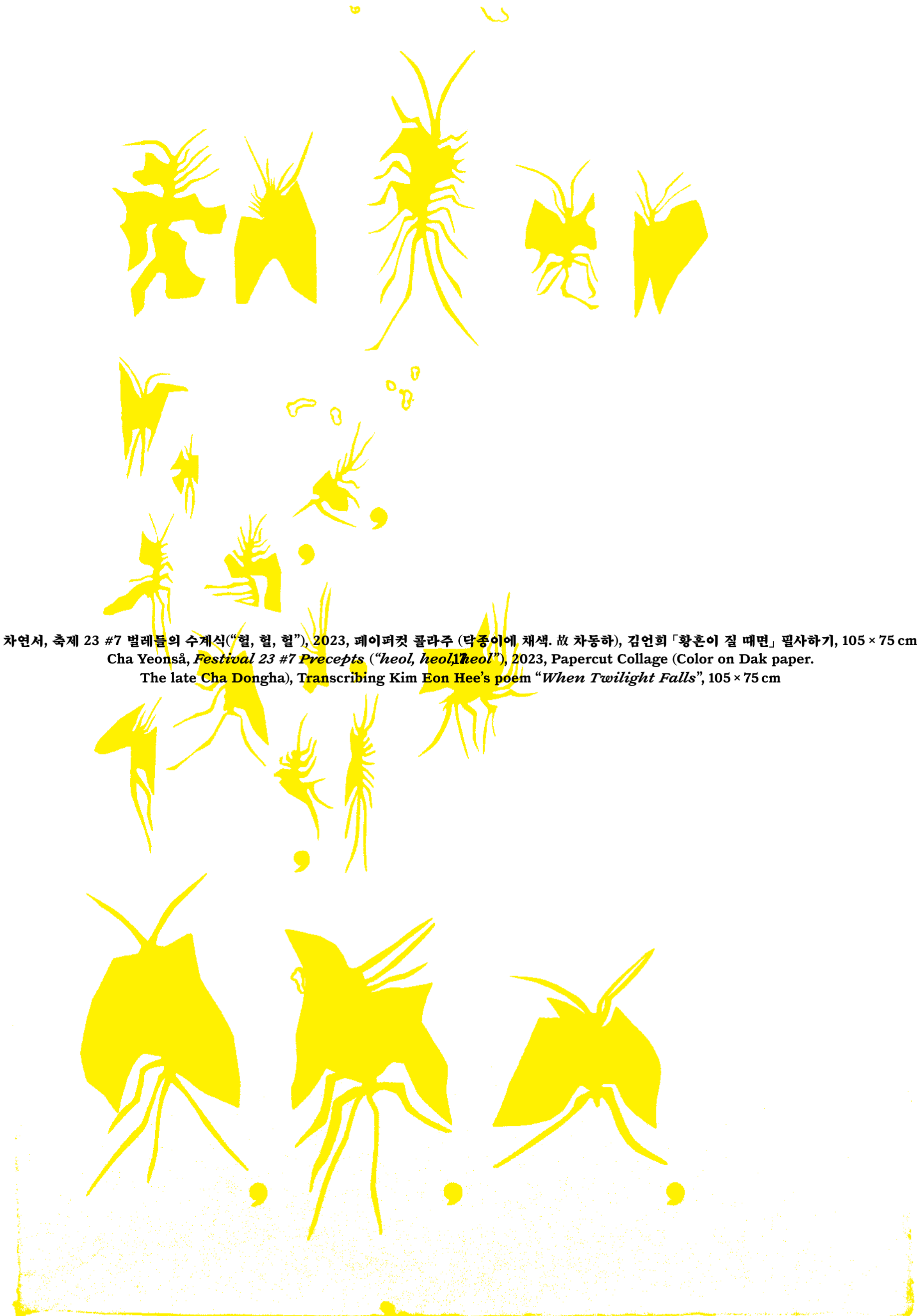
헐, 헐, 헐,

웃는

구멍

김언희, 「황혼이 질 때면」  
-김언희 시집 『GG』, 2020

차연서, 축제 23 #7 벌레들의 수계식(“헐, 헐, 헐”), 2023, 페이퍼컷 콜라주 (닥종이에 채색. 故 차동하), 김언희 「황혼이 질 때면」 필사하기, 105 × 75 cm  
Cha Yeonsa, *Festival 23 #7 Precepts* (“*heol, heol, heol*”), 2023, Papercut Collage (Color on Dak paper.  
The late Cha Dongha), Transcribing Kim Eon Hee's poem “*When Twilight Falls*”, 105 × 75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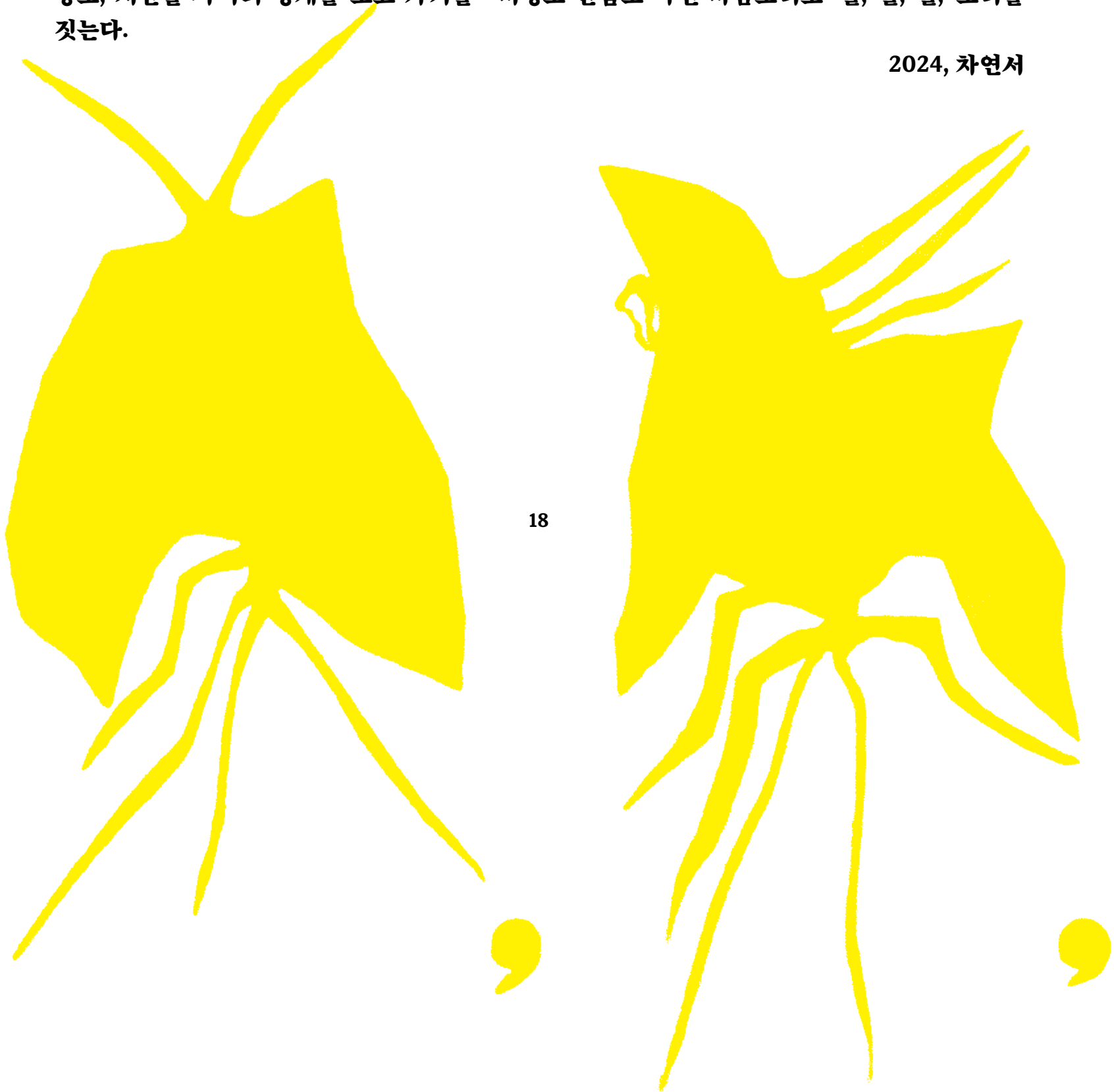


황혼이 질 때면  
라이브 퍼포먼스, 30분. 2024.

차연서는 김언희 시인의 「황혼이 질 때면」에서 등장하는 황혼 속의 구멍들을 음악가들의 목소리에 실어 초대한다. ‘끝장이 난 다음에도 중얼거리는’, ‘말랑말랑한 이빨로 내 머리를 씹는’, ‘나를 삼키는’ 존재들은 아이처럼 노인처럼 개구리처럼 찾아오고 웃으며 사라진다. 이 낯선 물가에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위한 샛노란 영혼의 목욕을 집전하는 3인의 세신사는, 이미 끝장난 끝과 새로운 시작 사이의 검고 누런 경계를 질정대며 거무죽죽한 풍선껌처럼 부풀게 한다.

논바이너리 싱어송라이터인 지국과 영안은 듀엣 무대로 편곡한 ‘Swallow’ (원곡. 영안, 편곡. 영안 및 지국)를 선보이며, 동환스님은 극락강을 건너는 길을 인도해주는 ‘인로왕보살(引路王菩薩)’을 부르는 짓소리를 실연한다. 세 갈래로 접쳐지고 갈라지는 목소리들이 이분화된 몸과 장소, 시간들 사이의 경계를 오고 가기를—비명도 한숨도 아닌 바람소리로 ‘헐, 헐, 헐’ 소리를 짓는다.

2024, 차연서



heol, heol, heol  
Live Performance, 30 Mins, 2024.

Cha Yeonsa invites the voices of musicians to embody the twilight holes described in poet Kim Eon Hee’s “At Dusk” (「황혼이 질 때면」). These entities, who “mumble even after meeting their end,” “chew on my head with tender teeth,” and “swallow me,” appear as children, as the elderly, and as frogs, before vanishing with a smile. The three bath attendants, performing a yellow-tinted spiritual bath for the dead and the living at this unfamiliar waterfront, chew on the black and yellow boundary between an already ended end and a new beginning, inflating it like dingy bubble gum.

Non-binary singer-songwriters June Green and Young\_An present a duet version of “Swallow” (original song by Young\_An, arranged by Young\_An and June Green), while Ven. Donghwan performs the Buddhist chant calling to the Bodhisattva (Inlowangbosal) who leads souls across the river of paradise. The overlapping and diverging voices traverse the boundaries between divided bodies, places, and times—uttering ‘heol, heol, heol,’ a sound that is neither a scream nor a sigh, but the sound of the wind—from deep inside their throats.

2024, Cha Yeonsa





차연서

개인전

- 2024 《살도 빠도 없는 나에게》, SAPY 그레이룸, 서울 (예정)  
—— 《꽃다발은 아직》, 상업화랑, 서울  
2023 《이 기막힌 잠》, 에너지후이쉬게임즈, 온라인  
2022 《Every mosquito feels the same(모든 모기들도 똑같이 느낄거야)》, This is not a church, 서울

단체전

- 2024 《슬픈 캡션》, SeMA병커, 서울  
—— 《혀 달린 비》, 아트선재센터, 서울  
2023 《모텔전》, 홍대 미성장모텔, 서울  
2020 《크게 슬플 일인가요》, 갤러리175, 서울

프로젝트

- 2024 라이브 퍼포먼스 황혼이 질 때면, Coex C Hall, Frieze Seoul LIVE, 서울  
2022 라이브 퍼포먼스 모스키토라바쥬스, Les601 선유, 서울  
—— 게임 3 Households, Steam, 온라인  
2020 라이브 퍼포먼스 주시 모스키토, K'art Gallery, 서울

Cha Yeonsa

- 1997 Born in Seoul  
2018–2019 Exchange program. Malmö Art Academy, Malmö, SE  
2021 B.F.A. The Department of Fine Arts, School of Visual Ar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oul, KR

Solo Shows

- 2024 *Feed me stones*, SAPY Gray Room, Seoul, KR (Scheduled)  
—— *KKOCH-DA-BAL is still there*, Sahngup Gallery, Seoul, KR  
2023 *This Unbelievable Sleep*, Energywhoisshe Games, Online  
2022 *Every mosquito feels the same*, This is not a church, Seoul, KR

Group Shows

- 2024 *Sad Captions*, SeMA Bunker, Seoul, KR (Curated by Eunha Jang)  
—— *Tongue of Rain*, Art Sonje Center, Seoul, KR (Curated by Moon Jiyun)  
2023 *The Motel*, Misungjang Motel, Seoul, KR (Curated by Hong Jiyoung, Team W O/F.)  
2020 *Be Sad I Dare You*, Gallery 175, Seoul, KR (Duo show with Park Juyeong)

Projects

- 2024 Live Performance *heol, heol, heol*, Coex C Hall, Frieze Seoul LIVE, Seoul, KR (Scheduled)  
2022 Live Performance *Mosquitolarvaj Juice*, Les601 Seonyu, Seoul, KR  
—— Game Release *3 Households*, Steam, Online  
2020 Live Performance *Juicy Mosquito*, K'arts Gallery, Seoul, KR

살도 빠도 없는 나에게

2024. 9. 3. – 9. 13.

SAPY 그레이룸

차연서 개인전

©2024. 차연서 energywhoisshe@gmail.com

이 리플렛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작가: 차연서

목소리: 동환스님

사운드디자인·음향감독: 이슬엽

공간디자인·무대감독: 김혜정

셋업 크루: 김진솔, 이정모

조명 기술감독: 김주슬기

조명크루: 고민주, 전하정

협력 기획: 하상현

그래픽디자인: 인현진

한·영 번역: 소제

멘토: 최빛나

비평: 양효실

중간자문: 고대영, 손나리, 이상화

후원: 서울문화재단

2024 서울문화재단 유망예술 지원사업 선정 작품

표구: 죽림표구사

인용 그림: 차동하 〈축제 09 #3〉(2009),  
〈소묘 90 #12〉(1990)

인용 시: 김언희 「귀류」, 「없소」, 「황혼이 질 때면」

라이브 퍼포먼스

〈황혼이 질 때면 heol, heol, heol〉

연출: 차연서

퍼포머: 동환스님, 지국, 영안

기술감독: 김혜정, 이슬엽

Frieze Seoul LIVE 2024 에서 커미션·초연된

작품 (기획: 문지윤)

차연서 개인전 《살도 빠도 없는 나에게

*Feed me stones*》연계 프로그램

*Feed me stones*

2024. 9. 3. – 9. 13.

SAPY Gray Room

Cha Yeonsa Solo Exhibition

©2024. Cha Yeonsa energywhoisshe@gmail.com

All rights are reserved.

Host by : CHA Yeonsa

Associate Curator: HA Sanghyun

Graphic Design by: IN Hyunjin

Kor to Eng Translation by: Soje

Recorded voice of chanting by: Ven. Donghwan

Sound director·Sound design by: LEE Solyoub

Installation director·Spatial design by:

KIM Hye Jeong

Installation crews: KIM Jin Sol, LEE Jung Mo

Lighting technical director: KIM JU Seulki

Lighting crews: JEON Hakyeong, YUN Hyoyoung

Mentoring by: Binna CHOI

Critique by: YANG Hyosil

Advisory on work-in-progress by: KO Daeyoung,

Nari SOHN, LEE Sanghwa

Supported by: SFAC—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Live Performance

*heol, heol, heol*

Directed by: Cha Yeonsa

Performers: Ven. Donghwan, June Green, Young\_An

Technical directors: KIM Hye Jeong, LEE Solyoub

Commissioned·Premiered by Frieze Seoul LIVE 2024

(Curated by Je Yun Moon)

Presented again in Cha Yeonsa solo exhibition

*Feed me stones*



검은 상자 안에서, 도들이표 콧노래, 끝나지 않고, 끝나지 않고, 끝나지 않고, 다가오는 이른 아침, 언젠가, 이 없는 아침, 혀 없는 아침, 팔 없는 아침, 털 없는 아침, 언젠가, 모든 게 없는 아침, 아침 없는 아침, 다시, 태어나고, 꿈에 오고, 그림에 오고, 다시, 겨울에 오고, 봄에 오고, 다시, 죽지 않고, 살지 않고, 잠들지 않고, 깨어나지 않고, 다시, 말하지 않고, 더듬지도 않고, 울지 않고, 우짚지 않고, 큰 눈으로, 담벼락을 타고, 아기울음소리로, 밤잠을 세우지 않고, 이제 아침을 일으키고, 아침을 매달고, 아침을 내려쳐라, 버려진 엉덩이, 동트는 엉덩이, 고놈의 작은 엉덩이, 그 척척한 구덩이를, 퍼올려라, 문드러질 때까지, 시반에 가득히 사인이 남을 때까지, 전기 담요 위에서 새파래질 때까지도, 얼음과자처럼 선선해질 때까지도, 슬픈 애벌레처럼 통통해질 때까지도, 이 가는 소리, 개가 잠꼬대하는 소리, 부드러운 개가 눈 감고 있는 소리, 영혼을 흘리는 소리, 털갈이로 너털너털하게, 존재를 흘리는 소리, 흘러도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뼈와 살의 평온함, 푸른 구슬처럼 도르르 흘리는 소리, 하늘이 터널처럼 내려앉는 소리, 바다가 빗물처럼 침수하는 소리, 봄에 때늦은, 함박눈 내리는 소리, 다시 한밤중에, 아이 찾는 소리, 싸고 핏고 걷고 기고, 걷고 기고 눕고 춤고, 배꼽 없는 배는 하늘 보이고, 하늘 보이고, 하늘 보이고, 하늘 아니고 천장이고, 마중 아니고 배웅이고, 목주 아니고 염주고, 일기 아니고 편지, 편지 아니고 유서, 죽고, 다시, 이른 아침, 물렁거리고, 케이크처럼 푹 들어가고, 다시, 마,아,아,아,음은 여기에 썩지 않고, 푹 여태 이렇게, 다시 푹 미쳐 이렇게, 시간이 흐를 뿐이므로, 남겨진 아이, 찾는 소리, 영혼 찾는 소리, 여태 이렇게, 별 수 없게 이렇게, 죄송하게 이렇게, 무참하게 이렇게, 너털웃음으로 이렇게, 황당하게 이렇게, 죽은 사람들 노래, 아무도 부정타지 않는 옛날 노래, 꿈에서, 열린 문들만이 줄지어 입 벌린, 칸칸이 가부좌를 튼, 뼈꿈 나앉은, 대문 앞의, 문지기들, 창문 두드려, 창문 죄다 두드려, 창문 없어, 창문 죄다 깨져서 없어, 다시 한밤중에, 아이 찾는 소리, 다리 떠는 소리, 마지막으로, 입 막아, 코 골지 않도록, 입술을 테이프로 막아, 짹짹 다시는 소리, 끝나지 않는 호소, 끝나지 않는 토로, 끝나지 않는 선잠, 끝나지 않는 줄바꾸기, 또 이렇게, 한밤중에, 살아있는, 네발 달린 침대, 네발 달린 욕조, 네발 달린 개, 숨 붙은 소리, 숨 붙어서 뛰노는 벼룩소리, 또 이렇게, 이번에야말로, 다시는, 이렇게는, 절대로, 마침표, 뒤에 마침표 끝, 마침표, 뒤에 마침표 끝, 마침표, 뒤에 마침표 끝, 마침표, 뒤에 끝났다, 말할 새도 없는 언젠가에, 아무 부검도 없이 끝, 호린 눈 막은 입 벌린 다리, 끝, 머리카락 손톱발톱 자라나는, 끝, 끝장난 끝 매듭, 끝없이 끝 매듭, 절벽 비탈 철조망 한 그루 나무, 끝, 입술 향문, 끝, 불타는 절 검은 산등성이 지지귀는 소쩍새 충혈된 능소화, 곰뻥이는 눈먼 눈, 귀먼 귀, 손목 갈린 손, 발목 갈린 발, 저 멀리 던진, 끝, 유틸해서 돌아오는, 끝, 주차된, 끝,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현관을 넘는, 끝, 우두커니, 끝, 익숙한 표정으로, 끝, 집에 돌아온, 끝, 어디서, 끝, 하고 뺨는 이웃집 가래침 소리, 끝

Inside a black box, humming on a loop, what does not end, does not end, does not end, approaches as dawn, someday, a morning without teeth, a morning without a tongue, a morning without arms, a morning without hair, someday, a morning without anything, a morning without morning, born, again, visits in dreams, visits in artworks, again, visits in winter, visits in spring, again, does not die, does not live, does not fall asleep, does not stir awake, again, does not speak, does not stutter, does not cry, does not warble, climbs a stone wall, with large eyes, does not lose sleep, over a crying baby, now raise the morning, hang the morning, and strike the morning, discarded buttocks, daybreaking buttocks, those tiny damn buttocks, that damp hole, keep digging, until they turn to pulp, until the cause of death remains in livor mortis, until they grow blue on the electric blanket, until they become cool like a popsicle, until they become plump like sad caterpillars, the sound of teeth grinding, the sound of a dog whining in its sleep, the sound of a soft dog closing its eyes, the sound of shedding one's soul, shedding as if molting, the sound of shedding one's existence, endlessly shedding yet never disappearing, the tranquility of bones and flesh that remain intact, the sound of one spilling as smoothly as a blue marble rolling across a surface, the sound of the sky collapsing like a tunnel, the sound of the sea flooding like rain, the sound of large snowflakes falling, in late spring, the sound of searching for a child, again in the middle of the night, peeing and licking and walking and crawling, walking and crawling and resting and freezing, A midriff without a bellybutton sees clear skies, sees clear skies, sees clear skies, is not a sky but a ceiling, is not a greeting but a farewell, is not a Catholic rosary but a Buddhist mala, is not a diary but a letter, is not a letter but a will, dies, again, early morning, is mushy, collapses like a cake, again, ma, ah, ah, ah, melodies don't rot here, collapses like this, collapses again unknowingly like this, as time flows by, the sound of searching, the child left behind, the sound of searching for a spirit, still like this, inevitably like this, apologetically like this, mercilessly like this, heartily like this, shockingly like this, a song of the dead, an old song that does not hex anyone, in a dream, the doors wide open all in a row, gatekeepers, in lotus position, one after another, sitting before the front gate, knock on the window, knock on every single window, there are no windows, all of the windows are shattered, again in the middle of the night, the sound of searching for a child, the sound of legs shaking, for the last time, shut your mouth, to prevent snoring, seal your mouth with tape, the sound of lips smacking, endless plea, endless talk, endless light sleep, endless line breaks, again like this, in the middle of the night, alive, a four-legged bed, a four-legged bathtub, a four-legged dog, the sound of breathlessness, the sound of a breathless flea bouncing around, again like this, but this time, never, again, like this, A period, followed by a period END, period, followed by a period END, period, followed by a period END, period, followed by THE END, one day without warning, ends without an autopsy, cloudy eyes blocked mouth spread legs, END, hair fingernails toenails growing, END, ended end knot, endless end knot, cliff slope barbed wire single tree, END, lip anus, END, burning temple black ridge chirping owl, blinking blind eyes, deaf ears, hands cut at the wrist, feet cut at the ankle, thrown far away, END, returning with a U-turn, END, parked, END, climbing over the front gate without even ringing the doorbell, END, vacantly, END, with a familiar expression, END, returning home, END, from somewhere, END, the sound of a neighbor spitting sputum, END

《꽃다발은 아직》(2024) 서문에서, 글: 차연서

From the preface of *KKOCH-DA-BAL is still there* (2024) by Cha Yeonsa